

치 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중한 시간 중에도 “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에 참석하신 스님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뜻 깊은 오늘을 축하하시는 불자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18회째를 맞이한 “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는 불교계 사회복지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이타행’의 면면을 함께 돌아보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법연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비나눔’이라는 공통의 소임을 함께 하는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전법의 뜻을 지혜와 자비로써 실천하시는 사회복지 지도자와 실천가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오랜 정진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수확입니다. 그러기에 무주상보시의 화현들이 헌신적인 덕행을 나누는 오늘은 우리 사회에 더없이 따뜻하고 미래의 힘이 되는 향기로운 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현 시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생명의 존엄을 너무도 쉽게 훼손해 버리고,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으로 인해 생태계는 분별없는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배금주의는 전통적인 윤리기준을 무너뜨리며 오히려 우리의 삶을 척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적 가치관에 따른 삶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복지가 절실하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요구를 충실히 읽어가며 사회통합과 중생구제라는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영역 곳곳에 불교계 모든 단체가 그 역할에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로인해 자유와 평등, 조화와 균형, 생명존중과 평화, 모든 생명의 존엄성이 인정되는 건강한 사회문화 공동체가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이라는 화엄경의 가르침처럼, 이웃의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손을 내밀었던 처음에 일으킨 마음을 항상 소중히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곧 이 땅이 불국정토 되어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물러남이 없는 보살행과 정진의 단단한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는 전국 불자들의 뜨거운 성원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시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모범을 보여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한결같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에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 앞날에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공덕이 우리 사회의 빛이 되고 국민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2016)년 12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자 승